

보도자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전 기념전

김인배 개인전

점·선·면을 제거하라



전시 일정 | 2014. 3. 6(목) - 4. 13 (일)

전시 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종로구 소격동 76

전시 작품 | 조각 및 설치 작품 15 점

관람 시간 | 11:00-19:00 (월요일 휴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전속작가 **김인배**(b.1978)의 개인전 <점·선·면을 제거하라> 를 3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개최한다. 2014년 3월 소격동으로 이전하여 새 공간을 오픈하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그 첫 전시로 전속 작가 김인배의 개인전을 마련하였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이전 오픈

1989년 천안에서 아라리오갤러리를 처음 오픈하고, 2002년 재개관전을 기점으로 전세계의 동시대 미술을 소개해 온 아라리오갤러리는 2006년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지점을 삼청동에 오픈하였다. 2012년 청담점을 오픈하면서 삼청동을 떠난 아라리오갤러리는 **2년만에 소격동으로 이전하며 다시 강북시대를 연다.**

2013년 아라리오갤러리 베이징을 사무실로 변경하고, 약 1년 여간 내적 안정을 기한 아라리오갤러리는 지난 11월 **공간사옥 구매**와 함께 서울과 제주에서 이어지는 아라리오미술관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다시 한국 미술계와 문화계의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아라리오미술관과 별개로 이번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옆으로 이전하며,** 다시 **미술계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는 현재 베이징 사무실을 연내 이전하여 새로운 **아라리오갤러리 중국을 오픈할 것** 또한 계획하고 있다.

이전 기념전, 김인배 개인전

아라리오갤러리의 강북시대를 다시 여는 첫 전시로 **한국 젊은 조각계의 총아이자,** 아라리오갤러리 전속 작가인 김인배 작가의 개인전이 3월 6일 오픈한다. 김인배 작가는 그동안 평면과 입체, 시간과 공간, 언어와 비언어 등 인간이 구분 지어 놓은 **인식구조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 왔다.

김인배 작가는 “**점, 선, 면을 제거하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번 전시에서 지난 3년 간 작업해온 미발표 신작 15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제목 그대로 **점, 선, 면과 그것의 연계성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깨뜨리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작가는 사물의 형태를 이루는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의 해체**를 다룬다. 작가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지고, 점이 만나, 선을, 선이 만나 면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김인배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점들이 만나 선이 되는 일반적 조형구조를 파괴한다. ‘**정면은 없다**’와 같은 작품은 얼굴의 옆면이 만나 정면이 아닌 선이 구성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들에서 덩어리였던 ‘**조각**’은 원래의 성질인 점, 선, 면으로 회귀하며, 평면과 입체 사이에 복합적인 상호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그의 작품은 비단, 점, 선, 면에 대한 조형적 언급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작품에서 점, 선, 면은 항상 신체의 매우 구체적 일부와 함께 한다. **신체 일부와 엉켜있는 점, 선, 면**들은, 그의 작품에 근육과 **신체의 감각**의 기억을 또한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감각의 기억은 "이가 빠질 것 같은 고통"(무거운 빛은 가볍다-왕관), "쫓겨해진 귀(켄다로크)" 등의 형태로 시각화 된다. **감각의 기억과 그것의 기록, 그것은 뭉개진 선 과면, 점들과 함께 뒤얽히고 공존한다.**

"점·선·면을 제거하라"는 제목이 그러하듯, 미술의 가장 기본 요소인 점, 선, 면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제거하라는 것. 그것은 좁게는 존재하는 **조형 언어에 대한 부정**이며, 넓게는 세계를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다. 김인배의 작업들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모든 의미와 개념들이 기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 계임을 드러내며, 그 실존이 겪어야만 하는 부조리는 본 전시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로 풀려진다.

본 전시는 **일층과 지하의 밝은 공간과 이층의 어두운 공간 사이의 극적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밝은 방에 놓여진 작품들은 점, 선, 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혹은 그것을 떠받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성계를 상징한다. 그 밝은 방은 점선면의 신전 같은 느낌을 주는 반면, 어두운 공간은 그 이면 세계의 고통을 상징하며 어두움 방 안에서 점, 선, 면들은 서로 뒤얽히고, 그것에 의해 고통 받는다.

김인배는 한국에서 **매우 독특한 조형 언어**를 구성하는 젊은 작가로 주목 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서울시립미술관, 대구 미술관, 울리 지그(Uli Sigg)** 등 주요 기관과 유수의 개인 컬렉터들에 의해 소장되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는 본 전시를 통해 물성이 강조된 작품을 통한 직관적 감각의 전이와 더불어, 인간이 규정지은 시각언어의 구조와 우리가 어떻게 보도록 학습받고 있는지 시각적 메커니즘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거운 빛은 가볍다 - 왕관, 2014, 황동, 40x30x57(h)cm



무거운 빛은 가볍다 - 왕관, 2014, 황동, 40x30x57(h)cm



무거운 빛은 가볍다 - 폐허, 2014, 황동, 30x32x60(h)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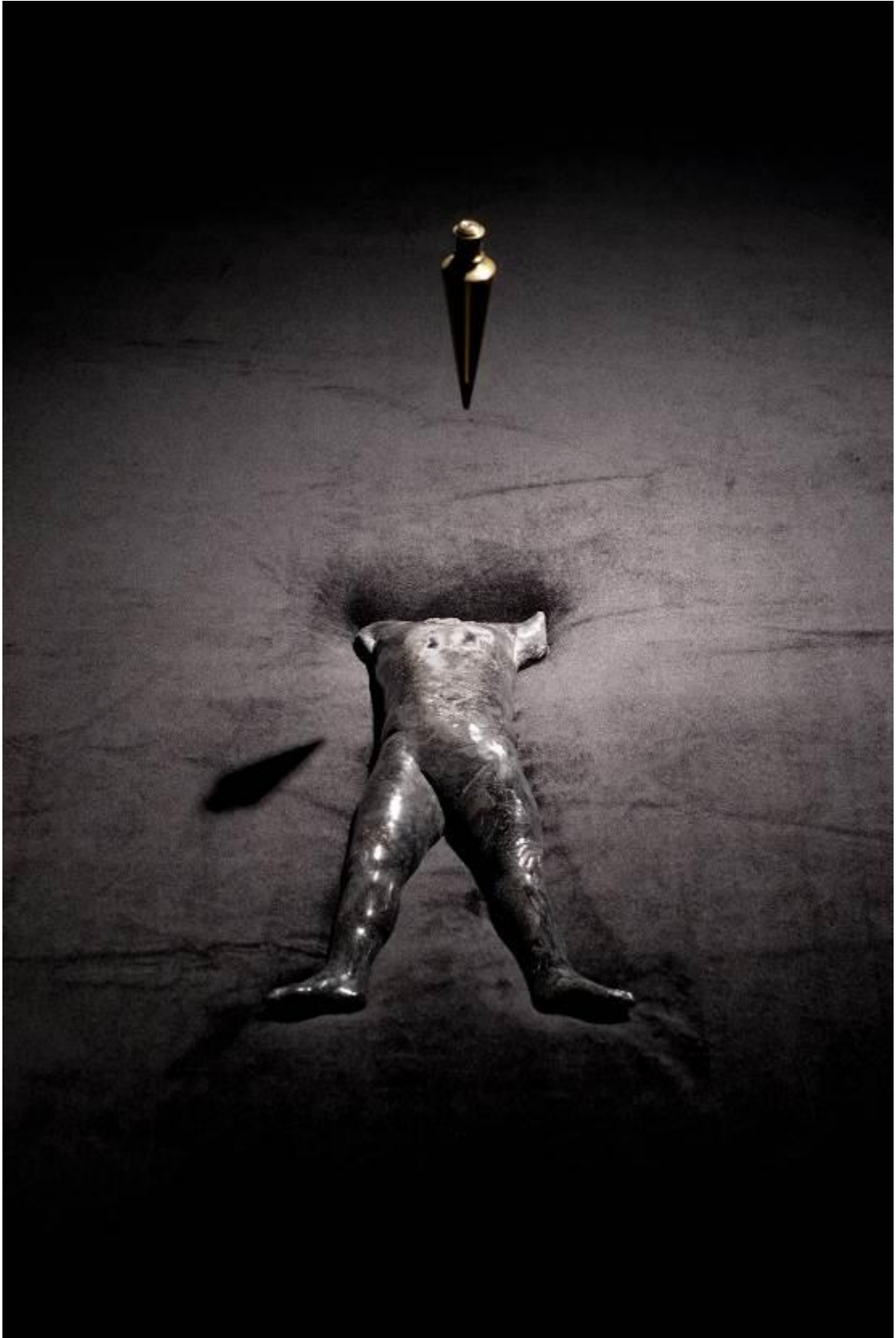
무거운 빛은 가볍다 - 폐허(세부), 2014, 황동, 30x32x60(h)cm



무거운 빛은 가볍다 - 기동(세부), 2014, 황동, 30x32x62(h)cm



전시장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4



빛, 2013, FRP, 가변크기



전시장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4



전시장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4



전시장면,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4



겐다로크(*Gendarloake*), 2013, FRP, 130x75x138(h)cm



겐다로크(Gendarloake), 2013, FRP, 130x75x138(h)cm



겐다로크(Gendarloake), 2013, FRP, 130x75x138(h)cm



정면은 없다, 2012, FRP, 24x36x81(h)cm



정면은 없다, 2012, FRP, 24x36x81(h)cm



핀 휴(Pin Hue), 2013, FRP, 28x45x94(h)cm



핀 휴(Pin Hue), 2013, FRP, 28x45x94(h)cm



읽어라, 2013, FRP, 90x150x190(h)cm



읽어라, 2013, FRP, 90x150x190(h)cm



눈1, 2014, 황동, 높이 60cm



눈2, 2014, 황동, 높이 60cm

김인배 Inbai Kim

b. 1978

서울에서 작업 및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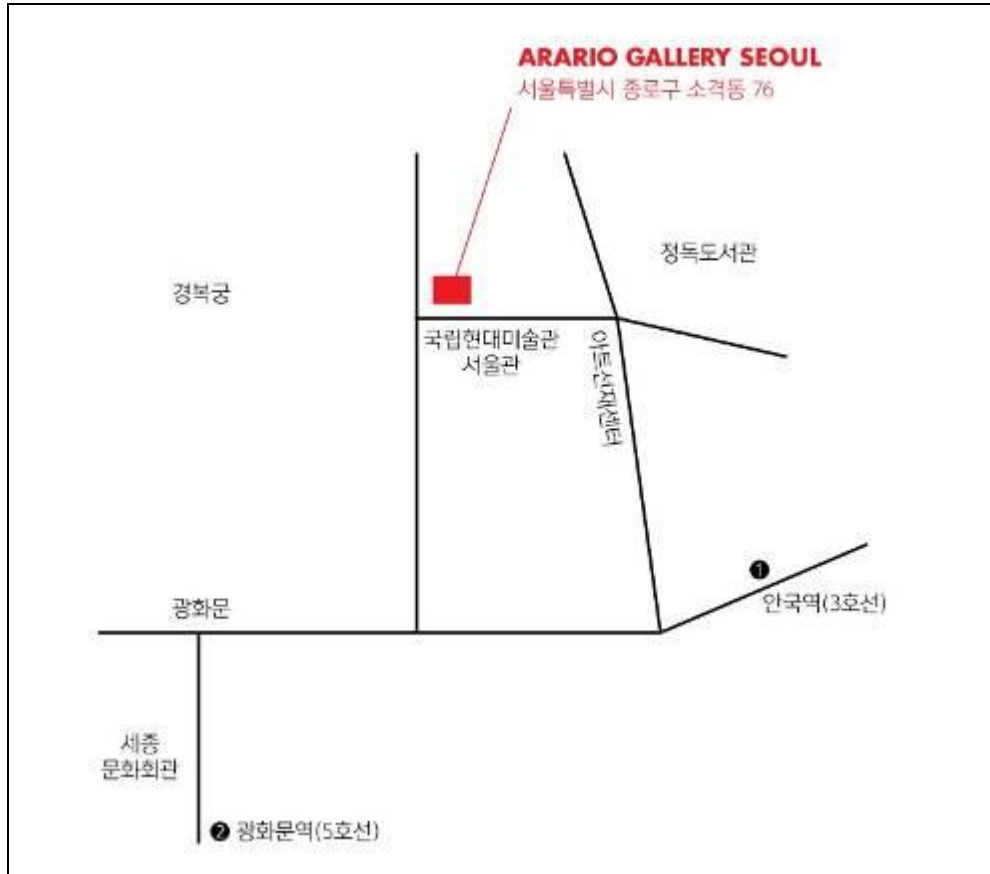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20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2014 *점·선·면을 제거하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2011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한국2010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두산 갤러리, 뉴욕, 미국2007 *진심으로 이동하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2006 *차원의 경계에 서라*,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한국**그룹전**2014 *장면의 재구성*,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2012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 두산 갤러리, 서울, 한국2011 *에필로그 : 경계에서다*,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Korean Eye : Moon Generation*, MAD, 뉴욕, 미국2010 *Artists with Arario*,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한국2009 *Korean Eye : Moon Generation*, SC제일은행, 서울, 한국 &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2008 *오래된 미래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한국2007 *제8회 오픈 스튜디오, 쌈지 스페이스*, 서울, 한국2006 *Wake up Andy Warhol*, 갤러리 쌈지, 서울, 한국*잘 굶기*, 소마 드로잉 센터, 서울, 한국2005 *프로젝트 '야야'*, 아트센터 나비, 서울, 한국*열*, 인사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포트폴리오 2005*,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한국2004 *프레파라트_어머니 지구*, 갤러리 스케이프, 갤러리 크세쥬, 서울, 한국*Sema 2004*,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2003 *All Rubber*,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Relation*, 멀티스페이스 키친, 서울, 한국*Serendipity*, 북카페 아이덴티티, 서울, 한국2002 *나비의 꿈*, 쌈지 스페이스 &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2000 *제 3회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클럽 Super fly, 서울, 한국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76



전시 및 취재문의

송 예 진

E. yeajinsong@arariogallery.com

M. 010-4403-0741

T. 02-541-5701

이미지 다운로드 안내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서울 전시 → 김인배 개인전

이미지 제공 : 아라리오 갤러리